

“코로나 19 지역 확산 원천봉쇄” ‘순창튜브’ 조회수 10만 넘어서

남원시, 23개 읍면동장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등

이환주 남원시장이 24일 월례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점을 강조하며, 23개 읍면동장에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철저히 막자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최근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빠르게 지역으로 확산되는 만큼, 우리 시도 현재 재난대책본부부를 운영하는 등 전염병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이 최우선이자, 가장 중요하다”며 “23개 읍면동에서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파악, 코로나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관내에도 신천지 교회 예배당 1개소와 교육장 2개소가 있지만, 확인결과 교인들이 대구와 청도에 다녀오지 않은 만큼 각종 루

터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잘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9일부터 신천지 교회 예배, 교육 등이 중지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신천지 예배당, 교육장 자체 소독을 권유하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라”며 “등하교를 수시로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특히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복지 시설(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시 지역 및 관리공공시설에 대해 잠정 휴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원의료원이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



이환주 남원시장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국가차원에서 의료원 격리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남원의료원을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 접촉자나 환자가 발생해서 병상을 마련한 것이 아닌 만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다각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관내 담당부서를 떠나, ‘코로나 19’이 지역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인 만큼 23개 읍면동에서도 관내 취약계층들에게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하고,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원천봉쇄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 40여편 영상 업로드 홍보

순창군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를 개설해 40여편 영상을 업로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제작된 ‘12월 국내여행, 순창으로 힐링여행 떠나기’ 편은 조회수 10만을 넘어서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9분 30초 짜리 이 영상 한 편에는 관광, 숙박, 먹거리 등 보고 있으면 순창의 모든 곳을 다닌 것처럼 영상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 보고 있는 이들이 하여금 한 번쯤 순창으로 오고 싶게끔 여행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맞는 순창의 음식들을 먹고 있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먹고 싶게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순창에서 새롭게 개발한 ‘순창 으라차차 소스’와 ‘순창 특색 고추장소스’, ‘순창 특색 간장드레싱’을 활용해 요리 레시피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구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산 콩고추와 청양고추를 유



산균으로 발효하여 독특한 매운맛을 내는 ‘순창 으라차차 소스’는 지난해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 당시 출시하면서 박람회객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레시피 영상은 반찬가게 총각으로 소개하는 순창출신 흥은찬 셰프가 출연해 순창소스를 활용한 요리무침과 면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순창 특색 고추장소스’와 ‘순창 특색 간장드레싱’을 활용한 면 요리는 20~30대 젊은 층들도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해 순창소스의 인지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로나 디테일 관리 초강력 대응

심 민 임실군수 “읍·면별 동향 관리 철저” 당부

심 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일 전 실과소 및 읍면동장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보다 디테일한 대응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전 12개 읍면장을 비상소집한 가운데 “자칫 놓칠 수 있는 읍면에서 발생하는 관련 동향이나 정보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임실군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전 부서 및 읍면, 유

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상황 유지 및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군은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대응과 비상상황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 인근 지역 소독을 완료하고, 교인 파악과 관리에 들어갔다. 주소지 전입자 및 재산세

관리 등 관계자를 파악하여 교인 중 대구 신천지 행사를 다녀온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교회 72개소를 포함, 원불교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집합예배와 법회를 자제토록 권고조치했다.

관내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과 경로당, 작은목욕탕, 수영장 및 체육단련실을 포함하여 주요 체육관광시설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종합사격장, 국제양장 등도 당분간 휴관토록 했다.

이외에도 문화원과 영화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등 직접 또는 위탁관리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염병 예방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원 시스템을 전면 코로나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일반질병 환자는 가까운 남원도립의료원으로 신속히 안내, 치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풀가동 중인 가운데 상황총괄반 6개반을 편성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에 통제관 등 4개 팀, 선별진료소 풀가동, 자가격리자 일대일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3주간 임실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임실=진중영 기자



임실군은 24일 전 부서 및 12개 읍면동장 비상소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 과수 특화품목 육성사업 45억 투자

남원시는 FTA체결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과수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남원 과수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 8개분야 45억원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제일의 특화된 과수를 생산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7억원을 투자 현대화된 복숭아시설을 갖추어 차별화된 전국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춘향골 복숭아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리적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품질(운봉, 인월, 아영, 산내) 포도는 전국제일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으로 유망시 되는 새로운 품종인 사인머스켓이 보급되어 포도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에서도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FTA대응 과수시설현대화사업으로 품종갱신사업 등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 포도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덕과지구, 2020년 송동지구가 과실전문생산단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운봉지구와 아영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본사업으로 관내 일반관정, 배수로 및 정수로 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행복 가득한 민원실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이달부터 행복 가득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응무 차 방문한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동시에 민원인의 지친 삶에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네일아트, 샌

드마사지, 꽃차 시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민원인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고 체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저소득층노인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수술비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전에 반드시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382) 및 해당보건(진료)지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29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24일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영차고지)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7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며칠 사이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모든 공직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